국민 축제' 한마음 열광



항룡사 9층탑을 재현했다. 높이15미터.


◇올해 대폭 늘어난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해 연등 제작코너도 늘어 외국인들의 불교문화 체험을 도왔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연등제작 경연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


◇소쩍새마을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로 제등행진에 동참했다.


동한마당에 참가한 불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
하며연등축제를 마무

축제에서 사물(寫佛)체
하고 있는 새싹불자들.

별 멘 금은빛복장 '인라인부대'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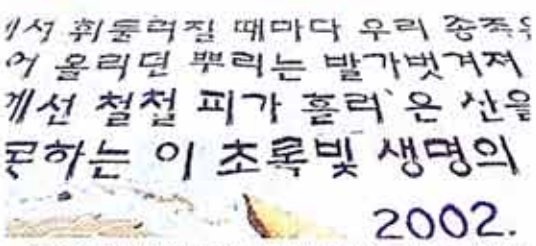
외국관광객들 '원더풀'…장단맞춰 '덩실'

꽃비속 우정국로서 회향 '대동한마당'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정대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설치미술가 최병수씨가 우정국로에서 북한산을 주제로 한 환경퍼포먼스를 펼치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일깨워줬다.

제등행렬 이모저모

"우리나라도 했으면…"

○…12일 낮 12시 무렵부터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들. 네덜란드, 미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 국적은 달라도 모두 함께 국제포교사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소쩍새마을이 마련한 연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 직접 만든 등을 선물로 받고 즐거워 연신 싱글벙글.

브라질인 리지아 씨의 다섯 가족, 영국인 린다 씨, 2명의 친구, 미얀마 불자인 헨소우씨 등도 연등 선물에 '원더풀'을 연발하며 풍물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헨소우 씨는 "미얀마는 초파일 행사가 법회밖에 없다"며 "한국의 연등축제와 같은 행사를 미얀마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학생들 거리포교

○…제등행렬에서 단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마음선원 어린이들의 '인라인 부대'. 등 뒤에 형광빛이 환한 '별'을 멘 채 금·은 빛의 반짝이는 복장으로 롤러블레이드라고도 불리는 인라인을 타고 행렬 앞뒤를 종횡무진. 특히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율동까지 선보이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너무 예쁘다"며 탄성을 연발.

또 한마음선원 거리 학생회 포교단이 처음 등장, 포교에 나섰다. 형형색색 화려한 복장을 한 한마음선원 중고등부 학생들은 탑골공원 앞에서 풍물, 난타, 스포츠댄스, 부채춤, 수화, 중창, 연꽃등춤, 힙합댄스 등을 공연하며 흥을 돋구었으며, 제등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열렬한 응원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북한에 대해 알아봐요' 퀴즈

○…"북한에서 '지하궁전'이라 부르는 것은?" "지하철". 거리축제에서 (사)좋은 벗들과 중앙대 북한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에 대해 알아봐요' 퀴즈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북한 바로알기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에도 어린이날과 스포츠 스타가 있고 학생들은 교복으로 멋을 부릴 줄도 알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는 천도교이고 '부등호'는 '안 갈기 기호'라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입으로 종이학접어 눈길끌어

○…소쩍새마을의 시인인 지체장애인 안명훈 군(24)이 거리축제에서 입으로 종이학을 접어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 안 군의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불자들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안 군이 쓴 시집을 구매하기도.

중계차 3대로 6시간 생중계

○…지난해에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제작비 문제로 방송을 하지 않았던 불교TV가 올해에는 중계차 3대와 카메라 10대를 동원해 오후 4시20분부터 밤 10시까지 케이블과 위성으로 생방송을 실시해 불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한마음선원 인터넷 방송국도 불교TV와 제휴해 인터넷으로 연등축제 행사를 생중계 했다. 불교TV의 이번 생방송은 조계종과 천태종, 한마음선원의 제작비 지원으로 이루어 진 것.

시민·외국인 섞여 신명난 뒤풀이

○…제등행진이 끝나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향식인 대동한마당이 우정국로에서 열렸다. 대동한마당에서는 연등법회에서 작성한 발원지 소지와 기원 날리기 의식이 하이라이트였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유독 월드컵 성공기원과 한국축구선수단의 16강 진출을 바라는 불자들의 기원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봉축특별취재반〉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색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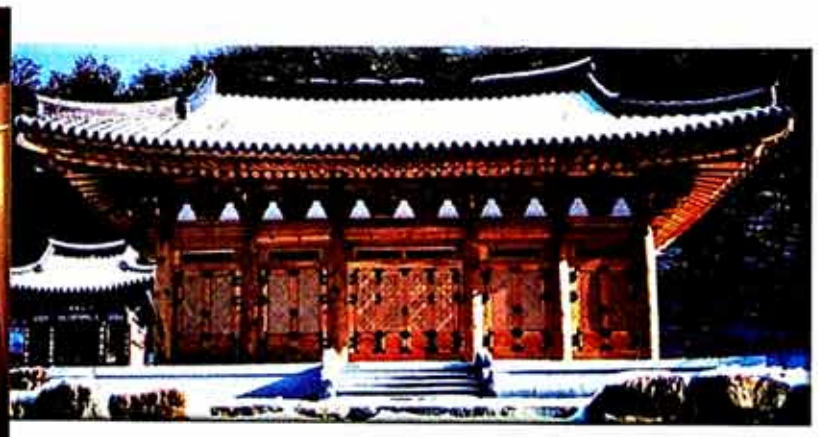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瑳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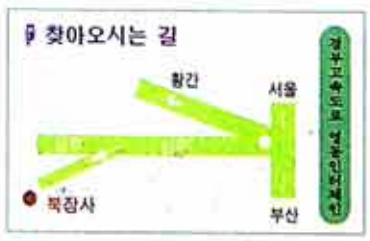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교통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